

# 氣, 그 신비의 實相

## 1. 氣의 세계



조 호 남\*

### 1. 들어가는 말

요즈음은 어디를 가나, 웬만한 모임이나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누구나 氣에 대해 쉽게 한두마디 정도는 하고, 氣功수련, 단전호흡과 그 효과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과 나름대로의 지론을 펴기도 하는 것을 흔히 본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氣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서 氣, 氣功, 단전호흡 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시중 서점에 북물 터지듯 나와 있는 氣관련 서적들을 보면 대개가 외기공, 특이공능 공간氣 등의 과학적 측정위주의 일본서적의 번역서나 기공·단전호흡 위주의 기공서적이거나, 동의학/한의 학적인 人體의 氣 경락 내를 흐르는 경락의 氣에 대한 책이나, 독단적이고 과장된 氣의 초능력, 초자연 현상의 과학적 측정 위주의 책들만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스컴조차도 氣를 흥미위주로, 건강기공이나, 초능력, 초자연적인

신비의 힘 정도로 다루어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 6년 사이에 氣열풍과 氣功붐이 일어난 주 이유는,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은 높아졌지만 도시의 각박한 생활환경, 직장의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구조, 교통지옥, 환경오염 등으로 현대인의 지나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상실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는 90년대 이래로 중국의 기공, 인도의 요가, 명상서적, 일본의 氣서적들이 들어오면서 건강도모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공, 명상, 요가, 단전호흡 수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옛부터 氣와 친숙했던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느새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氣는 매우 친숙한 말이 되었다. 원래 우리 일상언어 속에는 부지불식간에 氣에 관련된 말이 수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만 해도, 元氣·生氣·血氣·精氣·魂氣·魄氣·心氣·神氣·和氣·正氣·邪氣·濁氣...등 수없이 많고, '氣

\* 정희원·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분학회 회장

를 퍼다·‘氣分 좋다’·‘氣가 죽다’·‘氣絶하다’·‘氣막히다’·‘氣가 차다’·‘氣魄이 넘치다’·‘氣勢 좋다’…등,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너무나 많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모두가 우리 몸, 마음, 정신의 氣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기를 삶과 생활의 친숙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天地의 氣를 살피며, 周易의 원리에 따라 人間의 기와 자연의 기와의 오운육기(五運六氣)와 음양오행의 조화를 추구하며 ‘天地人’의 合一, 즉 하늘과 자연, 인간의 氣와 理(이치)의 조화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의 이기 속에 매일 오염된 환경,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며 각박한 도시생활, 조직화된 사회생활의 틀 속에 박혀 스트레스에 찬 삶을 사는 현대인들, 특히 혼탁한 삶의 환경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활환경과 섭생환경은 오염되어 있어 매일 毒氣를 마시며 살고 있고, 사회

환경은 물질만능, 환금만능의 사고 속에 물질주의에 중독되어 있다. 더구나, 첨단 과학기술의 과학주의에 압도되어 현대인의 정신-영혼은 진화·성장하지 못하고 점차 영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마음은 스트레스로 차서 꼬이고 흐트러지고 있어, 이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氣가 위협받고 삶의 본질마저 위협받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보통 인간, 보통 한국인의 삶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근래에 와서 기공 붐으로 인하여 氣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생활에 건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공, 단전호흡,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현상은 지금 시중의 많은 단전호흡, 기공수련 도장이나 단체에서 가르치는 氣수련은 단전호흡과 氣功의 행공 위주이며, 마음의 氣(心氣)와 정신의 氣(魂氣·靈氣)를 함께 수련하는 곳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일반인은 물론, 氣수련을 많이 했고 氣에 대해 연

## 오수일 선생의 생활 기공 수련법

### 1. 정통 도인법(導引法) ‘팔단금(八段錦)’

예로부터 전해오는 많은 기공 도인법 중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팔단금(八段錦)’이라는 수련법이 있다. 팔단금은 보기에 도도 실재로 수행하기에도 매우 쉽고 단순한 수련이긴 하나 효과는 대단히 우수하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정신적인 수련을 하는 전문가에게도 매우 필요한 기본 수련법이다.

앉아서 하는 ‘팔단금 좌공 8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 ◆ 팔단금 좌공 8법

##### 제1단 치아를 마주치고 정신 모으기

《자세》 정좌하여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방법》 치아를 36회 마주치며 정신을 모은 후

양손으로 머리 뒤를 감싸고 호흡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여 9회 호흡한다. 그 다음 양 손바닥으로 두 귀를 감싸고 둘째손가락으로 귀 뒤의 뼈를 24회 튀겨 친다.

##### 제2단 하늘 기둥 흔들기

《자세》 책상다리로 앉되 오른 발꿈치가 운환부위(여자는 회음부)에 오도록 한다. 양손은 마주잡는다.

《방법》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하고 내쉬는 숨에 맞추어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24회 움직인다. 손을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24회 행한다.

《효과》 정신을 맑게 하고 두통, 어지러움, 머리에 핏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 목이 결리는 것, 오관(눈·코·귀·입·얼굴)의 병을 없애준다.

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氣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고 초능력, 초상현상 위주의 외기공(外氣功)이나 공간氣, 혹은 경락내에 흐르는 氣로만 단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氣란 磁氣파의 일종으로 '자기와 합성체장 에너지'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는 지경이다. 氣에 대한 이와같은 혼돈과 편견은 氣가 아직은 완전히 그 신비가 자연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초과학적 속성과 반물질적 특성을 함께 지닌 자연과 생명현상의 비밀을 함유한 신비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氣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앎은 현재의 자연과학, 즉 양자이론과 상대성 이론의 두축으로 이루어진 현대물리학의 패러다임에 의해서는 밝힐 수 없고, 氣는 은우주에 사물계, 생물계, 고등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계에 충만한 자연의 氣와 생명의 氣를 망라하기 때문에, 신과학, 정신물리학, 정신과학, 심리학, 철학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이해해야하고, 기공·명상 수련을 통하여 체득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주제이다.

## 2. 氣란 무엇인가

### 2.1 氣에 대한 개념·인식의 혼란

氣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 서점에서 氣관련 서적을 찾아 보면, 무엇보다 먼저 氣와 氣功관련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서적들의 다루는 주제의 단순성에 비하여 내용의 다양성에 놀라고, 같은 분야의 氣서적 이라도 氣에 대한 정의와 개념·인식의 차이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氣서적들 사이의 氣에 대한 개념적 설명에서 저자들의 너무나 지나친 주관과 독단, 편견으로 가득찬 氣이론이 혼란스럽고, 뿐만 아니라 전통 氣사상을 다룬 氣哲學, 氣사상 서적에 나타난 氣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너무 다양하고, 번잡하며 혼란스러운 내용에 곤혹을 느끼게 된다. 그만큼 氣는 과학으로서나 학문으로서 수천년의 氣사상, 氣學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氣란 자연적 물질적 속성

특히 이와 잇몸이 튼튼해지고 3단과 병행하면 풍치나 잇몸의 염증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 〈참조〉 선비들과 팔단금

예로부터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팔단금의 수련을 많이 하였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전하신 건강 도인 체조가 바로 좌식 팔단금이다.

선비들의 경우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고 쓰기만 하므로 온몸의 혈액 순환은 물론 전신의 건

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쉬운 것은 당연하다. 마치 요즘의 수험생들과 흡사한 상황이다.

#### 제3단 붉은 용이 바다를 휘젓기

《자세》 정좌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수련한다.

《방법》 혀로 입천장과 잇몸을 골고루 문질러서 침이 입에 가득 고이면 이를 3번에 나누어 삼키는데, 마음속으로 침이 단전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며 한다. 이를 9회 행한다.

#### 제4단 문질러서 신장에 기운 보내기

《자세》 정좌한다.

《방법》 먼저 양손을 문질러서 열이 나게 한 후 양 손바닥으로 '신당(腎堂)' 즉 허리 뒤의 신장 부위를 아래 위로 36회 문지른다. 문지른 후에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 후 멈춘 채 마음으로 심장의 불기운이 단전으로 내려와 열이 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제1단



제2단

을 갖지만 초자연적이며 반물질적인 속성도 함께 갖고 있는 탓으로, 근래의 氣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를 자연과학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신비스런 존재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氣의 이러한 점을 빌미로 다년간의 명상·기공을 통한 그리고 氣에 대한 온전하고 타당한 앎을 외면한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만 집착하여 氣에 대한 지나친 독선, 편견과 주관적으로 황당한 논리를 펴거나, 아니면 氣를 보거나 경험해보지 않고 막연히 문헌으로만 이해한 전문가가 자신도 氣에 대해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문헌에 나타난 혼란스러운 氣개념을 그냥 나열식으로 소개하거나 열거하는 데 그쳐 일반인들로 하여금 더욱 氣에 대한 이해의 혼란만 조장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氣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하면서 신비스러운 대상으로 남아 있고, 오랜 기간의 기공수련, 명상, 참선생활을 한 사람들만이 氣를 확연하게 느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중에도 氣는 人体내의 경락과 오장육부내에 흐르는 氣-生体元氣,

生氣-나 外氣功의 특이공능의 氣, 초자연, 초능력의 자유에너지 같은 공간氣 정도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앞으로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의 氣에 대한 편협하거나 그릇된 이해, 단편적인 시각이나 독단적 가설들을 그들의 주장속에 담긴 범주오류와 인지적 오류(Fallacy)는 비판할 것이지만 그러한 氣이론과 주장, 가설이 갖는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진리성'을 드러내어 그 의미와 한계를 재해석하고 이 온우주의 모든 자연과 생명의 에너지로서의 氣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이해의 청사진을 존재의 대사슬에 대한 동서양의 '위대한 지혜의 전통'에 바탕을 둔 헉슬리(Huxely)의 '영원의 철학(perennial philosophy)'과 월버의 의식스펙트럼과 육안·심안·영안에 의한 상위과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제시할 것이다.

## 2.2 氣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인 氣사상이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이 氣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

### 제5단 외바퀴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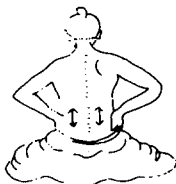
《자세》 정좌한다.

《방법》 왼손을 왼쪽 '신당'에 대고 고개를 숙인 후 왼쪽 어깨를 밖으로 36회 돌린다. 손을 바꾸어 같은 요령으로 오른쪽 어깨를 36회 돌린다. 《효과》 침은 '신수(神水)'라 하여 이를 많이 삼키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막고 뱃속의 적취를 없애준다. 4,5단은 하초의 양기를 도와 하부의 냉기를 없애고 상초의 화기를 끌어내려 골고루 퍼지게 한다.

'팔단금'은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제3단



제4단



제5단

각 독자적인 효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덟 가지를 순서대로 행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질병 치료 예방뿐 아니라 기공 수련을 하는 사람이 염원하는 '소주천' '대주천' 수련에 대단히 도움을 주는 보조 행법이기도 하다.

### 제6단 쌍바퀴 돌리기

《자세》 정좌하여 양손을 양 '신당'에 댄다.

《방법》 '외바퀴 돌리기'와 같은 요령으로 양손을 양 '신당'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양어깨를 밖으로 36회 돌린다. 이때 마음으로 단전의 뜨거운 기운이 꼬리뼈를 통해 척추를 따라 올라가서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상태에서 멈춘 후 끝나면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한다.

### 제7단 손모아 정수리 누르기

《자세》 정좌한다.

《방법》 양손을 무릎 후 손바닥에 '후' 하고 다

고, 그 대상과 용도에 따라 개념과 정의가 달라지며, 심지어 氣관련 문헌과 氣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정한 氣의 범주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氣의 개념과 정의 중에는 일부 유물론적 시각을 가진 류파에서 보듯이 물질적, 물리적 에너지만을 氣로 단정하는 정의도 있지만, 대개는 일종의 초물질적 속성을 갖는 우주적 에너지와 생명에너지를 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인간의 마음, 예지, 영성도 고도의 이지적, 정신적 에너지이므로 心氣, 魂氣, 靈氣등의 마음의 氣와 정신의 氣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의식에너지를 상위의 氣로 넓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氣가 이렇게 문헌에 따라, 사상에 따라,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주된 이유는 氣思想, 氣哲學, 氣科學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氣功·명상을 해본적도 없이, 氣에 대해 문헌에 의해서만 이해하거나, 氣功·명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도 氣라면

인체의 內氣(경락과 오장육부의 氣) 정도로만 이해하거나, 초능력·초자연의 자유에너지인 공간 氣로만 단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氣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고 있다면 氣는 전통 氣사상, 氣철학이나, 분야별, 전문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대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한 그 개념이나 정의자체가 달라질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氣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인간의 의식의 눈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나타나는 氣의 속성과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氣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氣의 가장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는 사상은 氣의 원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道家의 始祖, 노자의 《도덕경》의 生氣論에서 찾아야 한다. 《도덕경》 제42장 도화(道化)편에 보면, 『道生·하고 一生二하며, 二生三



제6단

제7단

제8단

섯 번 숨을 불어넣고 손을 깎지끼고 머리 위로 손바닥이 위를 보도록 뻗어 올렸다가 뒤집어 내려 머리 위를 누른다. 이를 9회 반복한다.

### 제8단 손 뻗쳐 발 집기

《자세》 무릎을 펴고 앉는다.

《방법》 상체를 앞으로 굽혀 양손으로 발바닥을 잡는다. 이때 몸을 숙이면서 숨을 내쉬고 일으키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이를 12회 반복한 후 정좌하여 3단과 같은 요령으로 침을 9회 삼킨다.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한다.

《효과》 '팔단금'은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인 하초는 따뜻하고 상초는 서늘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수련법이므로 어떠한 질병도 호전이 되도록 도와 준다.

## 2. 천지서기

오수일 선생이 연구한 치료 기공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최초의 단계,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련은 '천지(天地)서기' 수련이다. 수련 방법을 알아보자.

《자세》 어깨 넓이로 벌린 양 발이 평행이 되도록 선다. 무릎은 조금만 굽히고 척추를 곧게 세운다. 어깨는 낮추되 양팔꿈치를 들고 상박과 하박의 각도는 90도 이상, 손목을 뒤로 젖혀서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며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벌려서 마음속으로 종이 공을 잡는 것을 상상하며 살짝 굽힌다. 온몸의 힘을 빼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 양 손가락 끝부분부터 전기가 오듯이 찌릿

하고, 三生萬物하며 萬物은 負陰而抱陽하며, 沖氣以爲和라』고, 道에서 氣가 생기는 원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함축된 표현에 담긴 함의를 원리적으로 음미해 보면, ‘우주와 인간생명의 근본은 도(道)라 하고, 이 道가 미분화된 혼돈의 에너지인 일기(一氣), 즉 태극(太極)을 낳고, 이 일기는 회전하여 음양(陰陽)－양의(兩儀)의 이기(二氣)를 낳고, 다시 이 이기와 양기의 대치성이 서로 호응하면서 얽히고 설키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행(五行)의 상생상극(相生相克) 가운데 중화성이 되는 삼기(三氣)인 충기(沖氣), 즉 和氣가 생기고, 이 삼기에서 만물과 생명체가 생기는데,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안아 충기로서 화합한다’. 이 원문에서 삼기란 것은 만물과 생명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음기를 업고 양기를 안아서 충기로 화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老子가 말하는 氣의 원리는 道에서 나온 미분화된 일기(一氣)인 태극에서 나온 음양오행의 氣는 우주만물의 역동적인 에너지 자체

이며, 우주는 이러한 氣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다. 음양오행과 오운육기(五運六氣)의 역동적 변화와 충기(沖氣)의 화합작용으로 만물의 성주괴공(成住壞空)과 생주이멸(生住離滅)이 순환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글의 기본 주제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一氣인 태극에서 분화되어 나온 모든 氣는 역동적 에너지로서의 온우주에 편재한 모든 물질기는 물론, 모든 생명체의 초자연적 생명에너지까지 전부 망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생명기는 통념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체내의 경락을 따라 흐르는 氣, 오장육부의 氣인 한의학에서 말하는 인체의 內氣인 生體氣, 生命氣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기 사상에서도 여러 문헌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예를들면 氣사상이 별로 심오하게 나타나지 않은 儒家의 孔子 사상에서도 《禮記》의 《郊特性》에 보면, “인간은 사후에 魂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形魄－육신의 精氣와 魄氣－는 땅으로 돌아 간다”고 말하고 있는

찌릿한 느낌이 온다.

손에 찌릿하고 묵직한 열감이 오는 것을 ‘기감(氣感)’이라고 하는데 이 느낌을 마음으로 유도하여 팔 위로 올려 어깨에서 앞뒤로 몸통을 지나 양 발끝까지 오도록 한다.

처음에는 손끝만 강하고 다른 부분은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반복 수련하면 몸 전체에서 ‘기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천지서기’의 1단계인 ‘외부 경락 소통법’이다.

《시간》 하루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주의》 평소 ‘기’가 뚫리기 직전 통증이 올 수 있으나, ‘기’가 소통되면 자연히 사라지고 병도 낫는다.

‘암’하면 누구든 겁을 내고 손을 든다. 그러나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국에서 1977년에 발표된 ‘신기공 요법’이 암을 치료했기 때문이다. 광검이라는 여성이 개발한 치료 기공으로 광 여사 자신이 암에 걸렸으나 중국의 정통 기공

을 익혀 완치가 되었고, 자신이 개발한 기법을 추가하여 발표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의 대표적 ‘항암 기공’으로, 암의 예방 치료 효과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전통적 수련법을 지도하였으나, 기법이 어렵거나 중환자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오수일 선생은 전통적 원리에 입각하여 현대인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효과가 뛰어난 방법을 연구하여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나 일반인에게 시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용어해설》 기감(氣感) ◆

천지 서기를 포함해서 모든 기공 수련법을 수련하는 동안에 인체 내에 흐르는 기를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전기가 약하게 통하는 것처럼 찌릿 찌릿하거나 열감이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정전기를 띠는 것 같은 느낌이 팔다리나 몸통을 따라서 흐르듯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의 흐름이 원래 막혀 있는 곳일 경우 그 부위가 빠르거나 열감 또는 붓증이 오기도 하는데 수련에 의해서 기의 흐름이 소통되면 그러한 느낌은 즉시 사라진다.

데, 이는 人間の 氣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陽의 氣(陽神)인 魂氣와 신체를 형성시키고 유지 활동시키는 힘인 陰의 氣(陰神)인 魄氣를 人體의 內氣보다 상위의 氣로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氣를 의식에너지로 정의하는 보다 심오한 氣사상과 뒷장에서 상술하겠지만 불교의 唯識學의 心·意·識사상, 베단타 요가 철학, 탄트라불교, 현대의 현교적 神智學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한 人間の 氣의 계층적 구조를 말하고 있다. 이는 영원의 철학에 따른 '존재의 대사슬(Great Chain of Being)'에 대한 월버의 의식스펙트럼의 홀라키(holarchy)적 구조에서도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점차 알게 되겠지만 존재의 원리로서의 본체인 理/道/空/無/法性/브라흐만/절대정신/유일자/하느님(God)/Head...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老子의 生命사상의 유물론적이 아닌 원리적 해석에 따라 道/空에서 분화되어 나온 모든 氣이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의식에너지로서의 여러 계층의 생명기가 당연히 氣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여기서는 보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生命氣를 통념적인 생명기, 즉 생체원기와 구분하기 위하여 人間の 氣를 '온생명기'라고 일컫고, 생체원기 즉 생명원기는 生氣 또는 元氣로 일컫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과학적, 정신과학적 氣料學' 氣심리학, 氣철학으로서 氣의 상위과학적 실상을 밝히려는 이 글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氣인 生氣나 소위 氣科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 관심대상인 空間氣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원의 철학'과 상위과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氣의 실상을 알아 보기 위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케하는 모든 수준의 氣로서 육신의 氣인 정기(精氣)와 감정·충동·상념·의지 같은 본능적 의식의 氣인 심기(心氣), 그리고, 예지·직관·창조·자비·정신력 같은 정신의 氣인 혼기(魂氣)·영기(靈氣)를 모두 포함하는 온생명기로서의 氣의 개념에 역점을 두고 生命氣의 실상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인체는 생명조직의 場으로서의 氣의 장으로 이루어진 소우주로 이해해왔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몸이 精·氣·神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원리로서의 元神과 先天元氣가 부모의 정기인 元精에 스며들어 성장하면서 後天之氣인 정기와 生氣, 神氣를 발육성장시키며 이합집산의 생명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도가에서는 정동, 본능의 의식과 연관되는 신경세포에 붙어 있는 識인 魄(아니마/body soul/陰神)과 예지, 직관, 창조, 정신과 관계되는 魂(아니무스/spiritual soul/陽神)을 모두 神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가에서는 생명원기인 氣와 구별하여 神이라고 포괄적으로 총칭하고 있으나, 사실 元神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명기'인 것이다. 힌두교의 베단타심리학과 밀교가 아닌 현교로서의 神智學에서는 원리로서의 神에 해당하는 진아, 전일자(모나드)를 제외하고 그 아래의 의식, 상념, 직관, 정신 모두를 에너지인 기로 보았고 탄트라불교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반면에 禪불교와 대승불교는 唯識으로서의 모든 의식과 眞如·自性を 포함하는 온 마음(心)으로서 인간의 존재성을 설명하는 唯心 종교이기 때문에 기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힌두교의 베단타심리학, 탄트라불교심리학, 영원의 심리학(perennial psychology)에 따른 초인격심리학의 의식과학적 개념에 따라서, 자연의 기 중에 생명원기인 소위 프라냐(Prana)라는 생체원기, 그리고 염력이나 텔레파시, 투시력, 투청과 같은 ESP현상과 특이공능 같은 초능력의 기, 감정·상념의 기인 마음의 기와 예지·직관·창조·정신의 혼기, 정신기 등을 모두 총칭하여 생명조직장의 생성, 유지, 활동에 필수적인 온생명기로서 다룰 것이다.

### 3. 氣의 과학적 측정은 가능한가?

#### 3.1 氣과학의 동향 및 실태

氣는 과연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다만 동양의학이나 심리학, 또는 철학적 탐구의 대상일 뿐인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답이 없거나 알 수 없는 화두 같은 것이다.

이미 앞에서 광범위하게 알아 본 바와 같이, 氣란 물리적·물질적인 자연의 氣와 반물질적·초물질적인 氣, 그리고 초자연의 여러 수준의 의식에 너지의 스펙트럼인 생명氣를 모두 망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물질적·초자연적인 氣는 현재의 물리학, 의학, 생명과학의 수준으로는 그 실체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힐 수 없는 초자연적 세계와 생명현상의 비밀을 함유한 신비한 에너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과학적 측정도구로 반물질적, 초물질적 속성을 지닌 氣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금속을 녹이는 초고온의 물질을 금속 온도계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단순한 비유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 중, 일의 일련의 과학자와 氣전문가들이 氣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연히 氣의 속성상 아직은 장님 코끼리만지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2년에 중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氣와 인간과학”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보듯이, 현재의 氣과학의 수준은 서모그래피 측정, 길리언(Girlian) 고주파사진촬영, 바이오피드백장치나 자기공명장치 등으로 외기공과 내기공에 의한 원적외선 검출, 오라(aura) 측정, 뇌파의 변화, 자화수의 생성 등을 연구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기현상의 피상적 이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학적 측정에 의해 기현상의 일부 작용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임으로써 일반인이나 일부 과학자, 의사들조차도 기란 무조건 신비적이며 허황된 것으로 생각해오던 기에 대한 종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시중 서점에서는 각종 기 관련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십 권에 이르는 이들 기 관련서들을 보면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현상은 오류, 편견, 독단 투성이의 많은 책들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있다. 심지어 일부 기공, 단전호흡 관련 기서적들 중에는 흑세무민적

이고 주술적인 터무니없는 내용과 상업주의적 기공, 초능력 현상의 선전과 건강만능주의적 과장으로 가득 찬 자기선전류의 기공수련 서적 등 그 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 일부 서적은 기공, 명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단순히 기에 대한 일부 초능력 현상의 과학적 측정만을 바탕으로 기를 물질氣의 일부로 함부로 단정하거나, 심지어 기가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하여 물리적 법칙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등 경박한 과학주의에 편승한 기에 대한 편견과 독단으로 가득찬 서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에 대한 연구에서 기를 자연과학이나 물질기의 일종으로만 보거나,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증이나, 올바른 정신과학이나 신과학적 페르다임에 바탕을 둔 타당한 상위 과학적 접근이 아니면서, 기의 실체에 대해 함부로 단정하는 경박하고 독단적인 이론을 펴는 문헌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기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현재의 동향을 살펴보면, 나라별로 중점 연구방향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공을 중의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기공치료, 기공마취 등 기의학 위주로 기의 과학적 탐구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공사를 피험자로 이용한 내기와 외기의 과학적 측정을 통한 기의 작용현상을 다각적으로 규명하여 기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밝혀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엄력, 투시, 텔레파시 같은 ESP현상, Psi, 심령현상 및 여타의 초상현상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군사과학적 활용, 심신상관 의학적 측면에서 生氣의 연구 등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에서도 정신과학회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氣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고, 일부 소위 氣과학 연구자들에 의해 공간氣의 초상현상이나, 초과학, 초심리현상 연구 결과가 보도되거나 일부 책으로 나와 있다. 그 중에 최근에, 방건웅박사는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에서 氣와 관련된 ‘혁명적인 신과학 기술들’을 매우 소상하게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 학회회원들의 연구내용이나 연구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더구나, 일부 연구자들 중에는 氣의 자기 감응현상, 적외선 검출현상 등의 물리적 간섭현상이나 그 작용효과, 그리고 일부 공간기에 의한 상전이 강우현상 등의 초상, 초자연현상에만 바탕을 두고 氣의 실체에 대한 어설픈 단정을 하거나, 실제규명을 위한 올바른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증도 없이 氣의 정체에 대한 지나친 주관적인 단정이나 편견에 의한 비약과 오류가 과도한 실태이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氣의 현상과 실체를 규명하려는 일본과 한국의 일부 기연구자들의 문제는 기의 정체를 자연과학인 물리학, 경험분석과학의 방법으로만 파악하려는 데 있다. 바이오피드백장치나 자기공명장치 등과 같은 계측기에 의한 기의 작용 효과에 대한 측정만으로는 기와 물질과의 피상적인 간섭작용현상과 물질과의 생성 등, 즉 겉보기 간섭, 공명작용 효과로 인한 물리적 변화나 현상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지만, 氣 물질과 초물질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의 실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에 관해 윌버(K. Wilb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의 실제 규명은 갈릴레오나 케플러로부터 시작된 계측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자연과학, 경험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의 초자연 현상의 원인은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적 측정도구로 기의 물질과의 간섭, 공명작용 현상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실체를 밝힐 수는 없다. 다만 기도 에너지의 일종이므로 그 실제 작용원리는 중력장이나 양자장 같은 물리적 퍼텐셜장과 파동현상, 홀로그램(hologram) 원리 등이 적용되는 정신물리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氣는 단순한 생체기로서만 파악해서는 안되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소우주라고 볼 수 있는 인간과 같이 고도로 진화된 생명체의 생명조직장 자체가 마음과 정신의 의식에너지를 모두 망라한 의식의 장이며, 이것이 온생명기장을 형성하므로 기는 온생명기로서 홀라키(holarchy)적 구조를 갖는 실재로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기는 윌버가 말하는 상위과학(higher science)의 대상으로서 신과학의 패러다

임과 의식과학, 정신과학(Geist science)적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해야만 하며, 동시에 기현상의 규명과 기의 활용을 위한 과학적 측정을 위주로 하는 인체과학, 생명과학, 심신의학(대체의학)적 접근도 이와 함께 다각적이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 3.2 氣의 과학적 측정과 氣과학의 한계

최근에 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기의 정체와 그 작용효과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중국과 일본의 기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신과학회의 일부 회원 중에 기의 자기공명현상이나 기의 면역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책으로 내놓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에서의 이러한 연구 동향을 잘 집약한 문헌이 유아사 야스오(湯淺泰雄)에 의해 편집된 《氣와 인간과학》이라는 중일 심포지움 강연집이다. 이 강연집을 보면 일본과 중국의 최근 기연구의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주로 기와 외기공 효과의 과학적 측정과 기공과 의료, 기와 인체·생명과학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 이시카와 미츠오는 〈존재로서의 氣와 기능으로서의 氣〉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현재 기의 과학적 측정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氣의 과학적 측정 시도는 존재로서의 기를 과학적 장치로 측정하려는 시도인데, 존재로서의 기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기의 검출이 필요하나 경락을 흐르는 內氣는 인체 내부의 복잡한 생리적 기능과 결부되어 있어 분리 검출이 불가능 하다. 결국, 기공사가 방사하는 외기의 작용에 의해 적외선이나 전기, 자기같은 물리력이 검출되고, 물질이 변화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서 기의 정체를 파악되려는 것은 '기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시카와 미츠오의 관점은 기에 대한 필자와 관점과 동일한 것이다. 심지어 "외기의 일성분은 磁氣이다."라고 단정하거나 기를 자기공명현상의 하나로 기를 자기파 합성체장으로 단

정해버리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이는 마치 어떤 물리적 현상의 결과를 일으킨 원인은 모르면서 현상만을 관측하여 그 실체를 단정하려는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인 독단에 불과하다. 물론 기공사가 행하는 외기가 물질파를 생성하거나 물리적인 간섭·공명현상과 물리적 양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기의 기능적인 효과연구의 측면에서 기의 자연과학적인 연구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 고도화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현재 생물의 성장에 미치는 외기의 영향, 자화수의 생성, 생리식염수 및 포도당용액에 대한 기공 외기의 영향, DNA·RNA에 대한 기공 외기의 영향 등을 연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를 객관화하고 정량화시킨 체계적인 연구사례는 없다. 앞으로 과학적 측정예에 의한 인체 內氣의 물리적·생리적 작용현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기 현상의 체계적 규명과 과학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지만 더욱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결국, 이시카와 미츠오가 그의 글에서 “데이빗 붐의 숨겨진 질서(implicate order)의 가설이 시사하는 것처럼, 존재로서의 기는 시간, 공간, 물질등을 분리해서 파악하는 종래의 계측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실재’일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기는 자연의 물리적인 물질기와는 다른 半물질적, 초물질적인 에너지의 일종이며 현재의 자연과학 수준으로는 그 정체를 규명할 수 없다. 다만 종래의 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의 기과학은 기의 실체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아닌 기의 기능과 현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기와 보건기공, 기와 기공치료, 기와 심신의학, 기의 생체에 대한 생화학적 영향, 기의 생명과학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4. 전통氣 사상의 虛實

氣사상은 서양에는 없는 동양 고유의 사상으로 동양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인도, 중국, 한국, 일

본의 전통종교와 사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마다 지리, 기후, 환경의 차이로 민족성도 다르고 문화, 역사가 다른 것같이 종교와 철학 사상도 서로 다르므로 氣사상도 다양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氣사상은 나라별로, 혹은 종교, 철학사상 별로 살펴 볼 수 있지만, 워낙 방대하여 그 규모는 여러권의 책으로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정도이다. 먼저, 동양의 주요 종교 속에 나타나는 氣사상의 특징을 보면 매우 다양하면서도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다. 먼저 중국 못지않게 풍성하고 오랜 전통을 가진 인도의 힌두교에서의 氣-힌두에서는 프라나(prana)-사상을 보면, 그 사상은 氣수련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요가수련과 힌두의 聖典인 우파리샤드에서 나온 베단타 요가 심리학에서 힌두 고유의 차크라(chakra)수련, 쿤달리니(kundalini)수련에 의한 프라나-氣-수련과 인간의 몸, 생명의 眞我(아트만)을 싸고 있는 여러 층의 오묘한 에너지(氣)로 되어 있음을 매우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氣(프라나, 생명에너지)사상의 체계성과 과학성은 중국의 氣사상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통氣사상이란 은연중에 중국에서 내려온 儒家, 道家의 전통 氣學, 氣哲學사상을 의미한다. 중국의 전통 氣사상은 도교의 노장사상, 신선·煙丹사상, 유교의 공맹사상, 주역의 氣사상, 성리학의 理氣二元論의 理本體論적 사상으로부터 유물론적, 基本體論적 氣學사상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조의 정치, 사회 상황과, 제도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왔으나, 중국 전통 氣사상은 관념론적 氣사상이 주류를 이루어, 儒學의 理氣論考나 氣學의 氣論을 주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도의 氣수련을 통해 神痛의 경지에 이른 道家나 불가의 道人, 고승들과는 달리, 氣수련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변적으로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정치, 사회, 인간·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氣論에 그쳤기 때문에, 주도적인 理氣사상을 보면, 氣는 形以下の 존재로서 물질적, 물

리적 자연의 氣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理·道·性은 形以上の 존재로 二元論적인 또는 유물론자들의 氣一元論적인 氣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전통 氣사상-氣學, 氣哲學은 근대에 와서 서구의 과학기술이 중국의 격변기, 개화기에 유입되면서 氣를 단순히 전기, 질점과 같은 물질 에너지를 규정하고, 공간주의 체재하에 유물론적 氣사상만이 용인되므로서, 합법적으로는 理學, 心學, 道學과 함께 융성해진 氣學의 전통 氣사상은 쇠락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전통철학에서 氣哲學, 氣學은 중국 고유의 儒家의 정신과 그 속의 儒學, 性理學의 仁學, 理學의 주요 사상속에 대립적, 종속적, 대응적 범주로서의 氣에 대한 이해에 그친 것이다. 여기에 氣學이 그렇게 수많은 이론과 범주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과학화, 체계화 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氣哲學, 氣學에서 말하는 氣의 대부분이 氣의 단편적 편파적인 일면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形以下적인 면만을 氣의 범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전통 氣기상에서 氣本體論적 氣學이나 理本體論적 理學/성리학, 心本體論의 心學모두가 범주오류와 한계를 지닌 이론으로 이는, 氣의 實體, 實相을 경험해 보거나 보지 못한 儒家의 理學/心學의 이론가들이 상위의 氣에 대해 무지한대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 5. 氣과학의 미래

그간 일부 서구의 氣 연구자들과 주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氣과학의 연구노력 그리고, 일부 국내의 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氣과학 연구자들의 연구노력의 결과, 다양한 기기에 의한 氣의 존재, 氣의 정체를 밝히고, 氣를 활용하는데 주력해온 氣과학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지만, 아직도 氣과학은 기존의 과학계, 의학계로부터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면 당하고 있고, 계속에 의해 氣의 존재는 어느정도 밝히고 있으나 워낙 氣의 속성이나 氣의 초자연적 현상이 기존 과학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있고, 그 측정결과

를 수학이나 이론적 표현에 의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는 탓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과학으로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인체내 경락을 따라 흐르는 內氣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자기 공명장치(NMRA), 인체와 생체의 氣의 실재를 밝히는 Kirlian오라사진, 오라측정기를 비롯한 다양한 氣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氣의 존재와 氣功의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氣가 존재하는가 또는 기공사의 氣功치료, 특이공능-초능력은 사실인가 아닌가 따위를 묻는 일은 어리석음 정도로 氣의 실체가 어느정도 벗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氣측정장치의 발달에 힘입어 氣의 존재나 그 작용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氣과학이 많은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氣과학 연구자들의 氣의 자기장 감응현상, 기공수나 자화수의 생성과 그 효능, 오라생성, 물질 창조 및 소멸, 공간기의 응축, 공간이동 등과 같은 氣의 초상현상에 도취되어, 氣와 물질 전자파의 동조현상 또 그 작용으로 인한 물질과 검출, 오라와 같은 생체氣의 후광현상 같은 氣의 현상을 氣의 실체·본질로 혼동하므로서, 氣는 '전자파의 일종이다', '자기파 합성체장이다', 'π Ray다'... 등등, 운운하면서 氣의 실체를 성급하게 단정하고, 마치 그것으로 氣의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氣의 모든 실체가 밝혀진 양 과대포장하여 함부로 논문으로, 책으로 발표하고 선전함으로써, 氣를 모르는 일반인들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것은 솔직하게 氣의 측정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밝혀진 氣의 존재나 氣의 위력, 氣의 초상현상을 최선을 다해 기존의 과학자들에서, 서양의 학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과학적으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다만 그 현상만은 보여줌으로써 氣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 하게 氣의 실체를 과학적 검증없이 단정해 버림으로써 포스트모던 신과학 사상으로부터도 호응을 못 얻고,

전통과학자나 서양의 학자들로부터 거부반응만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하면서 더욱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氣과학이 밝혀낸 인체경락의 내기의 존재 입증, 생체오라, 외기의 물질과 생성, 자화수나 기공수의 효능, 공간기의 집적등에 대한 보다 일부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氣의 실재와 그 효능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물리학의 초전도 현상과 같이 현상은 알지만 원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것과 같이, 氣의 실체나 원리의 어설픈 단정보다는 氣의 초능력·초상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첨단 양자물리학에서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통일장이론에 의한 기본힘의 정체, 쿼크렛이나 슈퍼스트링보다 더 기본적인 물질입자의 근본실체가 '공간기'일 수 있다는 자연스런 가설이나 패러다임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현대물리학이 氣, 특히 공간기나 생체氣를 현재의 양자물리학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성급한 단정보다는 현재 물리학의 수준에서는 초물질적인 속성과 반물질적 속성을 동시에 갖는 氣에 대해 밝혀진 것만을 과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과학적 예측방법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고, 氣의 작용효과, 氣의 생성, 氣의 초능력·초상현상을 재생하고,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氣의 측정, 생성, 활용 장치의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氣과학 이론을 이용하여 인체의 경락내를 유극하는 생체內氣와 질병치유효과, 氣와 뇌, 그

리고 육장육부 장부의 오행氣와 그 상호작용원리를 밝혀 생명과학 氣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염력·물질창조·공간이동·공간氣에너지의 생생활용에 의한 기존 석유·핵에너지와 대체함으로써 꿈의 무공해·무한 에너지가 현실화되어 문자 그대로 맹물로 가는 자동차, 무한동력기관의 개발 등 氣공학의 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분명 氣과학은 초보수준이지만,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다. 氣의 예측기술, 공간氣의 생성·집적기술도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고, 그때가 되면 氣과학이 현대 양자물리학이 통일장이론을 밝히고 물질의 진짜 기본단위를 밝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氣과학은 초과학, 신과학의 대상이 아닌 첨단과학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때가 되면, 공간에너지(자유에너지)로서의 氣의 실체를, 그리고 生氣로서의 생명氣의 정체를 보다 완전하게 밝히게 될 것이며, 氣의학은 생명과학, 서양의학과 동의학을 통합하는 진정한 생명과학으로서 생명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무한정으로 있는 공간에서 자유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뽑아서 사용함으로써 공해없는 무한동력 또는 상전이를 이용하여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은하계 너머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정보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제3의 산업혁명, 기술혁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하고 볼 수 있는 초과학적, 초현대적 신 인류의 문명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계속> 